

# 韓 國 燈 火 史

(12)

## A Light Lamp History of Korea

崔 漢 燮

### 第 4 章 近世의 前期 ②

代表的인 燈器 (承前)

#### 木製燈臺걸이

木製의 燈臺걸이는 近世後期에 많이 사용되었고 그 종류도 많다. 그러나 京電燈火史料室에 所藏되 었던 것 가운데에는 정말 오랜 것으로 어찌면 朝鮮 朝前期의 것으로 생각되는 古色이 惝然하고 木製部 分에는 기름이 먹어 黑漆과 같은 光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림62는 木製燈臺걸이의 代表的인 樣式인데 이 런 모양의 燈臺걸이는 일반 庶民住宅用이라기 보다

는 주로 中流以上の 富裕層에서 사용되었으며 庶民 層에서는 기름받이가 없는 단순한 一柱竿燈臺 걸이 가 사용되었다.

또한 그림說明에서 牛角形기름받이를 牛角燈臺이 라고 한 것은 日本 淺川씨의 朝鮮陶磁名考에 依據 한 것인데 기름받이의 錯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燈臺걸이에는 陰刻으로 「沙角」이 라고 쓴 것도 있었는데 沙角이란 陶器의 甬이라는 뜻이다.

그림63은 國立民俗博物館所藏의 거북모양의 燈臺 걸이인데 年代는 朝鮮朝 後期의 것으로 짐작되는데 높이는 70cm이다.



〈그림-62〉 木製燈臺걸이



〈그림-63〉 거북모양 燈臺걸이

## 牛角形기름받이

그림64는 그림62 木製燈臺걸이의 牛角形기름받이로서 실제로 소뿔(牛角)모양을 나타낸 白磁牛角形기름받이다 이 그림은 後期の 作品이지만 京電燈火史料室에는 前期의 것으로 보이는 粉靑沙器도 있었다고도 한다.

처음에는 實物의 소뿔을 사용하였으나 소뿔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기름이 먹어 더러워지므로 室内燈器用으로는 보기에 醜하게 되기 때문에 손질만하면 언제나 깨끗하게 쓸 수 있는 陶器의 기름받이를 만들게 된 것 같다.

이 기름받이의 사용법은 그림 6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쪽 燈잔의 기름이나 불뿔을 밑에서 받도록 만들어졌다.

朝鮮朝初期 또는 그 以前부터 기름받이에는 실제의 소뿔이 사용되다가 그의 代用으로 이러한 陶器가 이미 初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 64) 白磁牛角形기름받이

## 大理石 海태頭付燈臺

그림65는 朝鮮朝前期의 것으로 짐작되는 大理石製燈잔이다.

京電燈火史料室所藏이었는데 國立中央博物館에 移管되면서 기름받이로 分類되었으나 本品은 燈잔임에 틀림이 없다.

燈잔에는 元來 土器, 陶器 또는 大理石製등이 있는데 특히 大理石製는 玉燈臺이라고도 하며 그 起源은 멀리 高麗時代까지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 65) 大理石海태頭付燈잔

그리고 적은 玉燈잔은 引燈이라고 하여 巫家의 行事에도 사용되고 또는 佛前의 燃燈에도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서 큰 것은 지름이 1尺에 達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玉燈잔은 지금도 큰 寺刹에서 볼 수 있으며, 江華島 傳燈寺에 있는 吊架式 玉燈잔은 그의 代表的이라고 할만큼 有名하다.

그림의 大理石製 燈잔에는 海태의 얼굴이 浮刻되어 있는데 지름이 17cm, 높이 7cm정도로서 類似品이 적은 珍品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밖에 大理石製의 燈器로서는 燭臺도 있다. 本品에는 吊架式으로 달 수 있는 구멍이나 그 밖의 構造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寺刹에서 佛前用으로 사용되 별도로 받침臺 즉 燈잔臺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또한 이러한 玉燈잔에는 蠟燭의 씨를 볶아 찌서 짠 기름인 깨끗한 참기름(眞油 또는 脂麻油)을 사용하기 마련인데 純白의 大理石製 玉燈잔에 참기름의 불을 켜 情景는 매우 雅趣가 높다고 하겠다.

## 白磁油壺形燈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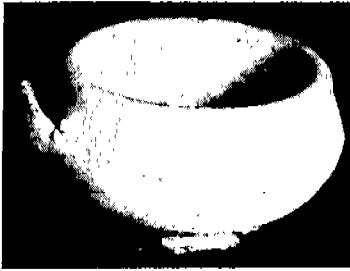
그림 66은 白磁燈잔으로는 드문 珍品中の 하나이다.

역시 京電燈火史料室의 所藏品으로써 접시 下方의 속이 비고 한쪽에 瓶口가 있어 보통의 접시形燈잔 밑에 기름받이의 접시 또는 병단지를 놓는 대신에 하나의 접시로 燈잔과 기름받이를 兼할 수 있게 한 상당히 진보된 形式의 燈잔이다.

本品은 前期의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양의 것은 朝鮮朝 前後期를 통하여 볼 수 있었는데 그 使用法은 그림 67과 같다.

## 白磁厨燈

그림68의 燈잔을 부엌燈이라고 함은 이 燈잔이



〈그림-66〉 白磁油壺形燈잔



〈그림-67〉 白磁油壺形燈잔의 使用法

부엌의 壁이나 기둥에 걸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엌燈의 原形은 木製나 素燒製이었으리라 짐작되며 그에 이어서 鐵製와 鍮製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鍮製는 京電燈火史料室에 朝鮮朝前後期를 통한 製品 數點이 保存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림68은 上部가 툇니처럼 장식되어 있고 中央에 있는 구멍은 못에 걸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形式의 것이 바로 그림 69의 鍮製부엌燈이다.

年代는 白磁부엌燈이 前期의 것인데 反하여 그림 69는 後期の 것으로 보이는데 그림68의 白磁의 上部가 툇니裝飾인데 대하여 雙의 새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精巧한 透刻으로 만든 珍品이다.

그리고 그림69는 壁이나 못에 걸 수 있도록 중앙에 못걸이 홈이 있을뿐만 아니라 밑에 圓形의 下台가 또하나 있어 걸지 않고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 下方台는 동시에 기름받이로도 兼用할 수 있는 進歩된 形式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엌燈에는 비교적 많은 여러가지 形式의 것들이 있다. 國立民俗博物館所藏의 木製부엌燈은 소나무의 古木으로 殿閣을 본뜬 燈갓을 浮刻한 투박하면서도 재미있는 모양이고 또 질그릇으로 둥근 燈籠을 만들어 바람을 막고 한쪽에 구멍을 뚫어



〈그림-68〉 白磁부엌燈



〈그림-69〉 鍮製부엌燈

燈잔을 넣어 照明을 한 것들도 있다.

그리고 그림68과 같은 부엌燈은 日本 江戸時代の 風俗圖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燈火器具에 대하여도 日本 中國의 것들과 比較研究가 絶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素燒長頸燈臺

그림70은 素燒長頸式 燈臺이다.

京電燈火史料室에 所藏되었던 것인데 國立中央博物館에 移管되면서 素燒細長頸油瓶으로 分類되었다. 목에는 竹節紋이 白象嵌되어 있다. 瓶下部胴체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岸씨는 이것은 안에 있는 기름을 빼어내기 위한 것이며 上部의 瓶口에는 燈잔을 올려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形式은 漢代의 滿州出土品에서도 볼 수 있는 대단히 오랜 形式의 것이며 朝鮮朝 後期까지 慶尙, 全羅등 주로 南韓地方에 傳承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本品이 바로 朝鮮朝 前期의 것인지 또 後期製品인지는 분명치가 않으나 燈잔臺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림-70〉 素燒長頸式燈臺

## 李恒福의 燭籠

宣祖修正實錄 卷二十六 宣祖二十五年 壬辰四月三十日條에 壬辰倭亂때 日軍의 小西行長, 加藤清正을 비롯하여 黑田, 毛利, 宇喜多등의 軍勢가 서울에 近接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고 宣祖大王이 西行하는 情狀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上既決西幸之議 關內史撲等 喧譁而退 俄而 衛士盡散 更鼓斷絕夜深 李鎰狀啓 始至云 賊今明日 必至都城 狀入良久 而上出致義門西幸 令祠官 奉宗

社 主版先行 世子隨俊駕出 ……王妣 步出仁和門 女侍數十從之 夜黑雨暗 咫尺不辨 唯都承旨李恒福 執燭前導 ……』

王이 피난가는 혼란의 와중에도 오직 都承旨 李恒福만이 用意周到하게 燭을 들고 西幸을 前導하였다는데 이 李恒福이 執燭한 燭籠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휴대할 것이므로 提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 時代의 것으로 짐작되는 提燈(手燭籠) 中には 竹製 또는 鐵製의 살에 油紙로 접을 수 있는 것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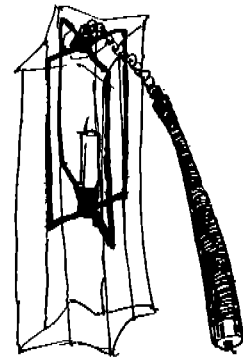
旅行用燈具로서는 最適으로서 그림기와 같이 鐵製와 木製의 부분은 서로 十字形으로 열 수 있도록 上下의 中心部를 組立하여 下方의 心에 초를 끼울 수 있도록 細工되어 있다.

그리고 위 中心部에 쇠줄을 달아서 손잡이에 매었다. 이 손잡이(柄)는 제법 굵은 것으로 안이 비어서 豫備用의 초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초가 다 타올때 자루안에 있는 초를 끄집어 내어서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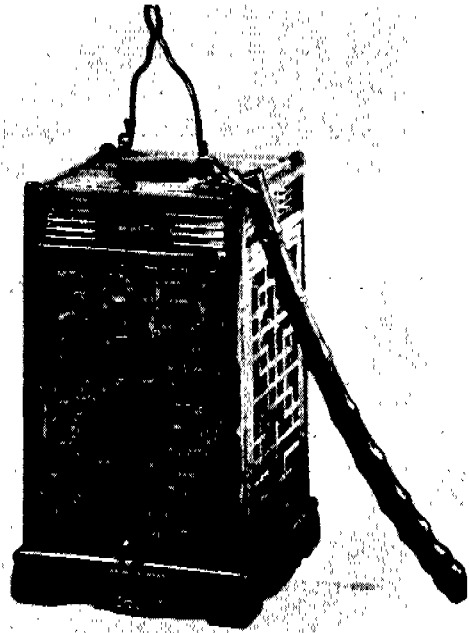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접는 틀은 이에 알맞게 油紙를 만들어 틀 위에서 썬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油紙도 鐵製의 틀을 접을 때에는 同時に 접게 되어있다.

이러한 간편한 휴대용 手燭籠外에 竹製나 木製의 提燈보다 작은 風致있는 細工의 手燭籠도 있었다.

李恒福이 執燭하였다는 手燭籠은 최근까지도 사용되었던 紗籠이나 手燭籠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그와 같은 非常時였던 만큼 휴대에 가장 간편한 접을 수 있는 手燭籠이 준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림-71〉 접는式提燈(手燭籠)



(그림-72) 提燈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李恒福은 元來 뛰어난 漢學者로서 志操가 굳고 先見之明이 있어 有事時에 그 力量이 발휘된 것 같다.

開城에 도착하자 吏曹參判으로 昇進하고 다시 平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刑曹判書와 大司憲을 拜受하고 이어서 兵曹判書가 되었고 明國과 交涉時에는 右議政이 되었다가 마침내 慈城府院君까지 封하여

졌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提燈을 준비한 한가지만 가지고도 國政에 빈틈없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것 같다.

그림72는 國立民俗博物館所藏의 提燈이다. 典型的인 提燈의 한 形式인데 이러한 提燈은 四角形外에 六角形도 많이 볼 수 있었다.

京電燈火史料室에는 朱漆六角手燭籠이 있었는데 優雅한 朱漆로서 '宮中 女官'이 휴대하던 것으로 傳하여졌었는데 손잡이는 生漆을 하였으며 손때가 묻어 光澤이 있었다고 한다.

#### 燈火用油瓶

燈火用的 油瓶에 대해서는 瓶 밑바닥에 옛날부터 붙어 있는 기름딱지를 採取한 다음 化學的으로 分析하여 어떤기름이 사용되었는가를 研究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京電燈火史料室에서는 실제로 不必要하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油瓶이 수집되어 있었다.

이것들은 研究를 계속하기 위하여 太平洋戰時下에서 疎開도 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인데 元來 더러운 油瓶이었으므로 6·25動亂中에 많은 貴重한 燈器들이 散逸되었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當時에는 별로 骨董價値도 없었던 것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逸品이 된 것도 적지 않았으나 이것들도 모두 國立中央博物館에 移管되고 말았다.

